

케어션스타이너 교육사상의 인문적 전통

김 덕 칠

(부경대학교 겸임부교수)

1. 서 언

19세기 중후반 산업혁명의 결과가 독일에도 번지면서 현실적으로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반)교육(Bildung)과 (직업) 양성교육(Ausbildung)은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도 잔존한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직업교육을 일반교육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특히 이같은 새 견해는 20세기 초 Kerschensteiner(케어션스타이너)가 직업학교를 세우면서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그는 독일에서 직업교육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독일교육과학에서 그 위상을 확립하게 되어 “직업학교의 아버지”로 명명된다. Reble에 따르면 “케어션스타이너는 그의 시대 독일교육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는 직업교육을 일반교육선상에 설정하고 자신이 설립한 직업학교를 그 실험의 장으로 삼았으며, 보습교육학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신의 교육이념에 따라 “일반 직업학교”를 발전시켰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업교육과 일반교육간의 연계라기 보다, 양자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케어션스타이너의 직업교육 사상이 전통의 인문교육에 연결된다는 점은 여러 각도에서 지적되어왔다. 예를 들어 Blankertz는 19세기 전반의 신인문주의 교육학자 Humboldt(훔볼트)와 20세기 초반 미국의 Dewey(듀이)의 교육사상이 유사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이어서 Röhrs 교수는 19세기 전반의 신인문주의 교육학자 훔볼트가 중시한 힘(Kraft)의 개념과 케어션스타이너의 Arbeit의 개념이 공통점이 있음을 논하였다.

이렇게 케어션스타이너는 독일 직업교육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울러 인문교육의 전통에도 접목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나아가 직업교육이 교육일반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올바른 설정은 케어션스타이너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이같은 관점에서 독일 직업교육학자 케어션스타이너의 직업교육 사상이 독일직업교육 발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살피려는 것이다. 먼저 그의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개념간의 연계성을 찾아보

고, 그것이 19세기 전반 훔볼트로 거슬러올라가는 독일전통의 인문교육 사상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듀이의 실용주의교육사상과 어떻게 맥을 같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듀이의 직업교육 사상에 상당히 유사한 직업교육이론은 이미 1904년 그가 발표한 “직업 혹은 일반교육”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1907년 듀이의 저서를 연구한 이후부터는 더 분명해진다.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케어션스타이너의 직업교육이론은 교육이 어느 누구보다 현실생활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려 한다. 이는 그가 개인과 사회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인간교육을 위한 오래된 원리를 수공활동의 주요한 교육사상과 연결지으며, 전통적 인간교육과 직업교육간의 밀착된 연결을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그의 “일반 직업학교”는 인간을 무엇보다도 고립된 개인주의적 교육의 수취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파악한다. 그의 교육사상은 넓게는 앵글로색슨적 개인 자유의 전통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집단적인 독일의 전통에 접목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II. 케어션스타이너의 인문적 전통

1. 독일 신인문주의 사상

훔볼트의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케어션스타이너의 것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는 훔볼트가 “국가와 시민의 선택”의 논고에서 피력한 다음과 같은 대목으로 이상적 인격 형성의 모형에 대한 것이다.

단순 노동자인 장인들로부터 예술가(Künstler)가 양성된다. 예술적 인간이란 그들의 생업을 그 안에서 기꺼이 사랑하고, 자기 특유의 방식으로 이끈 힘과 독창성을 통해서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힘을 배양하고, 그들의 성격을 고상히 하며, 그들의 즐거움을 높인다.

훔볼트가 말하는 이상적인 예술가상은 창조성에 있다. 훔볼트가 농부와 수공업자에서 찾으려 하는 창조성은 “힘”과 연관된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갖는 힘은 원초적인 인간의 존재양식이다. 독립된 개체의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세계로 표출시킴으로써 완전한 인격체가 된다. 지적 힘과 고상한 인격은 자기 고유의 실제적 활동을 통해서만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위한 훔볼트사상의 최대의 개연성이다.

독특한 자기 존재양식에 합당한 자기실현을 가장 이상적인 개성으로 파악한 훔볼트의 인간교육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보다 확대된다. 시간·공간적으로 청소년기의 학교교육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사회 생활현장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모두 개인의 자기완성과정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훔볼트가 저술한 1809년 “Königsberger 학교 계획안”에서는 인간교육일반의 포괄적인 해석이 잘 개진되어 있다. “모든 이는, 가장 가난한 이도 완전한 인간교육을 받는다. 아직 개발이 진전될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이도 완전하고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받는다. 각자의 지적 개성은 그의 권리와 자리를 찾고, 어느 누구도 대부분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것 같은 그의 점진적 개발,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도 그가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도중에서 자기의 권리와 위상을, 사실 이것은 대부분 결국은 취득할 속성의 것이지만, 스스로 규정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자기 개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들은 학교를 떠나서도 순수한 수업에서부터 특수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자기의 개성을 완성할 기회를 갖는다. 물론 위의 진술은 완전한 인간교육을 통해서 참된 개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 주된 과제이지만, 여기서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난 후 사회교육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개성형성의 과정을 제시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훔볼트가 제시한 개성이 각 개인에 특유한 개별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이다. 부유한 자의 자녀와 가난한 자의 자녀는 각각 그들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종류의 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 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던지 혹은 시민생활을 하게 되며, 각각 학교에서 언어 강의나 혹은 사회에서 보다 실제적인 일에 종사한다. 그러한 상이한 경험을 통해서 각자는 독특한 성격 특성을 이룬다.

케어션스타이너는 독일 직업교육 사상의 원류를 이루는데, 그에게는 가치롭고 지속적인 지식은 이론과 연구가 아니라, 이론과 실체가 연결된 것이며, 행동적 삶과 자립적이고도 생산적인 노동에 대한 것이다. 독일 직업학교 교사연합회에서는 이같은 케어션스타이너의 독일 직업교육 사상의 원류의 하나를 훔볼트의 사상에 연결시킨다. 이론과 실체를 접합하려 한 점에서 케어션스타이너는 농부와 수공업자들에게 가능한 교육을 모색한 훔볼트와 공통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인문주의 사상의 전통

케어션스타이너의 인문적 전통정신이 근거하고 있는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교육이론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것을 위한 작업으로 훔볼트와 듀이의 인간학적 교육학적 전제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유용하다. 먼저 각 청소년은 하나의 장래 직업에 고정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두 사람의 답변은 상이하다. 듀이에 있어 직업은, 개인에게 직업은 하나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중복적이고, 또한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훔볼트에 있어서는 직업이 점진적이고, 자기 규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사한 교육적 전제는 교육이란 어떤 시기에 한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는 점이 동일하며, 이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블랑커츠(Blankertz)는 훔볼트와 듀이간에 교육의 부단성에 관한 유사점을 비교하고 있다. 주목한 듀이의 진술은 - “삶이란 환경에 작용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 훔볼트의 힘의 사상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훔볼트사상에 의하면 힘이 외부에 작용함으로써 내적 개선에로의 자기 갱신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훔볼트는 인간교육이론에서 완전한 인격체가 갖추어야 할 세계와의 관계 모형을 잘 진술하고 있다. “순수한 힘은 그것이 사용될 대상을 필요로 하고, 순수한 형식, 순수한 사상은 그것이 새겨져 지속될 것 같은 질료가 필요함으로, 것처럼 인간도 자기 바깥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의 인식과 효력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그런 노력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자를, 혹은 이것은 자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긴 하지만 실은 그런 사실이 그에게 있어서 원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그의 내적 개선과 고상함에 있지만, 또한 그런 사실을 분명히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노력한다.”

훔볼트의 힘과 듀이의 반성적 사고를 두 사람간에 공유되는 교육사상을 비교하면 대단히 비슷한 점을 발견한다. 불란커츠는 그 두 사람에게서 감지되는 인간교육의 부단성을 곧 그 사람의 인간학적 특성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노력했다. 훔볼트에서 상징되는 순수이념체로서 힘은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신경조직이 필요하며, 이 조직체가 그가 전제하는 질료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각적 인식을 통해서 생성되는 보편적 표상은 능동적인 오성을 구성하고, 이런 능동적 이성은 자기 활동적이고도 창조적이다. 훔볼트에서 표현되고 있는 “노력”은 바로 그와 같은 이성 활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듀이의 반성적 사고에서 이해되는 삶에 대한 규정은 훔볼트의 “노력”과 대비시켜 비교해 볼 수 있다. 듀이에 있어 반성적 사고가 환경을 인간 욕구에 맞게 재구성하는 문제해결과정임에 비해서, 훔볼트에 있어 “노력”은 인간의 “내적 개선”과 “고상”함을 지향하는 활동적 이성작용이다. 훔볼트가 제시한 교육이론 모형은 사실적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격묘사학이라 봄이 더 타당하고, 그것에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유로이 작용하는 훔볼트에게 경험적-철학적 그리고 또한 역사적 인식에로의 길을 열어주고, 힘을 구사하는 인간상어로 접근하는 철학적 통로를 제공한다. 케어션스타이너의 개성에 대한 철학적 태도는 그의 교육이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III. 케어션스타이너의 인문주의적 속성

1. 학교교육에서 외국어 교육

케어션스타이너와 듀이의 교육이론의 특징은 이론과 실제의 일원론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관계로 전통적인 일반 교육의 수용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케어션스타이너가 파악한 학생들의 교과 활동은 사실 폭넓게 교육되어야겠고, 고정된 학습자료에 의하지 않고, 정신적이고 실제적인 학습이 합쳐져있는 형태의 수업을 받게 된다.

에더러(Ederer)의 논고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에 끼친 듀이의 영향”에서는 양자간의 외국어 학습에 관한 견해가 비교되고 있다. 듀이가 이해한 외국어 강의는 어린이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된다. 그는 “미래의 학교”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학습하는 것은 휴식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서 순수한 문화적인 교과 과정에 해당한다. 그것은 항구적인 영어 학습훈련을 보상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케어션스타이너는 외국어 학습의 실용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그는 일종의 복선 교육노선을 구상했는데, 실무자를 위한 학교형태가 그 하나요 또 다른 하나는 지도자를 위한 학교 형태였다. 두 종류의 학교 형태에서 공히 외국어 수업이 실용성에 의해 평가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케어션스타이너의 사상발전 경향의 한 면을 보여준다. 웰케스에 의하면 그것은 듀이철학에 맥을 같이한다. 그러한 경향은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이론에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후기작품에서 언어강의에 관해서 아래처럼 주장했다. “외국어는 형식적 물질적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구사회에 필요불가결하다. 그것은 최소한 단지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통적인 유럽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언어적 흥미가 성장하는 시기에, 또한 언어습득이 용이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어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케어션스타이너와 듀이의 외국어 강의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구별된다. 자유, 문화, 교양을 전달하는 무엇보다 상위층 자녀를 위한 학교와 수공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실제적 삶을 준비하는 학교간의 구분을 듀이는 극복하려고 했다. 거기에 반해서 케어션스타이너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특별한 직업적인, 그래서 자기의 작품인 직업학교에 대한 흥미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러한 연유는 그 자신의 어려웠던 성장 과정, 즉 늦게 김나지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외국어를 늦게 배우게 된 연유로 인해서 특히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인문적 전통정신이 그 근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케어션스타이너의 특수한 유년의 경험은 현저하게 청소년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그의 흥미로 나타났다. 여기에 반해서 듀이는 미국시민으로서 케어션스타이너보다는 매우 쉬운 성장과정을 가짐으로써 케어션스타이너와 전혀 다른 사상적 지평을 갖는다. 거기에서 언어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 못 된다. 듀이는 스스로 라틴어를 강의하고 헤켈 연구가로서 독일에 대한 이해는 동시대인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대화의 창이 필요하며, 그것은 사상적 통일을 낳을수 있는 수단으로서 언어의 도구성을 깨닫게 한다. 듀이는 자연과학의 강의를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모국어로 된 강의를 그는 확실히 어떤 경우이던지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했고, 그 반면에 외국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느긋한 정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2. 실용성

케어션스타이너의 성격이론은 무엇보다도 민족 전체 속에 있는 개체의 관계에서 이해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의 다음의 인용문이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 “이상적인 인간에 이르는 길은 단지 유용한 인간 그 이상으로 이끈다. 그 유용한 인간은 자기와 자기의 민족의 노동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와 힘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이다. 그가 이것을 성취하는 정도에서만 한 국가는 그를 인간으로서 가치평가할 수 있다. 그 곳에서는 괴테가 말했듯이, 최소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 만약 그가 그의 능력과 재능 안에서 활동한다면, “실용적 인간”이란 단어는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그 개념정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실용적 인간”이란 “useful”를 brauchbar로 힐라가 번역한 것이며, 그 의미에 있어 듀이와 힐라는 어느 정도 구별될 수 있다. 즉 듀이에게 있어 useful은 보다 포괄적인 것에 비해서 Hylla에 있어 brauchbar는 보다 노동과 관련된 실용적인 뜻을 함의하고 있다. 케어션스타이너는 Hylla가

번역한 brauchbar의 의미를 초월해서 보다 포괄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더 나아가서 그 근본에 있어 독일 인문주의 사상에 맥을 연결시킨다. 그와 같은 그의 태도는 Froese로부터 뜻깊은 찬사를 받게 된다. 즉 케어션스타이너의 신인문주의에로 회귀를 확신시키는 유명한 구절-"이상적인 인간에 이르는 길은 단지 실용적인 인간 그 이상으로 이끈다."-은 하나의 모형이 되었고, 이것은 또한 직업교육을 새로이 가치 평가하는 경향으로 이끌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케어션스타이너가 지향하는 직업교육과 듀이의 그것이 합치되는 것을 확인할 기회를 갖는다. 듀이는 그곳에서 직업의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직업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 돈벌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좁게는 실제적 교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어느정도 완전히 직업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이란 오로지 인간의 삶의 활동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삶의 활동은 그것이 이룩한 결과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주변인에게 유용하게 때문에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된다.” 곧 이어서 듀이는 그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케어션스타이너와 보다 분명히 일치하는 대목이 된다.: “어떤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계속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용어이다. 그것은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거나 기업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예술적 능력과 특수한 과학적 능력과 효과적인 시민적 자질의 개발, 말할 것도 없이 기계적인 노동 혹은 이윤 추구에 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케어션스타이너는 “직업-혹은 일반 교육”의 한 대목에서 당대의 잘못 이해되고 현실에서 유리된 일반교육이 이상적인 교육형태로 간주되는 세대에 강력히 반발했다. 케어션스타이너에 의하면 가능한 한 풍부한 지식을 외부로부터 학교로 옮겨와야 하고, 실물 학습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경험들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인식력을 높일 수 있다. 현장 학습을 통해서 교육의 이론과 실체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이념은 바로 “지성은 생활속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직업교육의 교육학적 의미를 지성과 감성을 양성하는 최선책”으로 제시한 듀이 교육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IV. 인간 삶의 공간적 의미

1. 삶과 생활공간

케어션스타이너와 듀이가 이해한 유용성에 대해서 상호간의 견해의 차이가 발견된다. 케어션스타이너가 해석하는 “실용적 인간”은 여기서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동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노동을 인식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국가로부터 가치 평가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문시되는 것은 케어션스타이너의 그와 같은 진술 배경에는 “실업보습학교를 조직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이라는 논문에서 1906년 비교적 상세히 표현한 사상이 역사적 측면을 능가하는가 하는 문제다. 그곳에서 취급된 것을 보면 “나는 우리들의 공민사 회과를 하나의 문화역사의 한 종류로 간주하고 싶다. 그 문화 역사는 그 소년이 소속되었던

직업의 역사로부터 생성했다. 각 수공업과 직업은 각기 자기의 발달사를 갖고, 그 발달사는 과거의 단순한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직업의 명멸하는 운을 통해서 현재의 복잡한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와 같은 역사적 노정위에서 인간과 직업집단이 끊임없이 커져가는 예측성과 속박이 차츰 벗겨지고, 그런 역사 과정 위에서 학생들은 국가가 마주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가장 잘 배운다.” 이와같은 그의 인용에서 우리는 그의 역사의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공민학을 문화역사선상에서 파악한 케어션스타이너에게 직업은 사회의 공리적 수단으로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직업활동이 인간의 삶의 한 양태로 파악됨으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교양적 지식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이런 맥락에서 케어션스타이너에 있어서 직업교육은 기술기능교육의 범위를 넘어 보다 교양적인 의미를 갖추게 된다. 직업교육에 교양적 문화적 측면이 강조된 점에 있어서 케어션스타이너는 듀이와 맥을 같이 하지만, 또 다른 한 편론은 듀이와 상당히 상이한 점으로서는 국가의 역할내지 개인과 국가간의 상호역할 관계에 관한 위치설정의 문제가 지적된다. 그런 점에서 Reble은 케어션스타이너가 파악한 국가시민교육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eble은 “조화적 국가관”과 “추상적 국가이데아의 과시” 등을 케어션스타이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개인과 지역사회와 관계, 그리고 그 둘의 발전에 관한 것이 듀이의 주요과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주위 환경으로서 지역사회보다는 보다 추상적인 실체인 국가를 개인관의 관계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케어션스타이너적인 교육관은 듀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케어션스타이너가 설정한 위대한 민중을 위한 학교교육의 모습은 사고 활동을 보장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조건적인 복종과 의무 수행 그리고 근무정신의 훈련을 위한 권위적인 부단한 지도를 위하는 학교교육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점에서 볼 때 케어션스타이너는 과연 어느 정도로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과 일치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케어션스타이너의 인간성교육도 궁극적으로는 19세기 국가관념론에서 주체적 존재로 군림하는 민족국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일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반세기가 지난후 과거사에 되 비춰 봤을 때 나타나는 상을 논증거리로 제시할수 있다. 케어션스타이너의 시대 독일이 처한 국제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그가 주장하는 교육의 사회적 효용성과 한 개인의 인간성 발달을 위한 교육은 맞물려있고, 결국 그가 지향하는 자유시민 교육사상은 독일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정신에 입각한 인간상이고 보면, 듀이가 경계했고 경고했던 19C유럽에서 일어났던 국가주의 교육사상이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사상에서도 발견된다. Reble가 지적했듯이, 공민교육이 개인능력의 조화로운 발달이 아니라 “조화로운 국가관”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듀이가 주장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사상과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며 그의 교육사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일정서에 많이 젖어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2. 개인삶의 연장

케어션스타이너의 전기적 이해는 그의 교육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는 1911년 후반기에 자유진보민중당(Freisinnige Volkspartei)에 가입했고, 1912년 주의회 의원이 되었지만, 그런 사실이 그의 교육적 견해와 그정당의 강령이 일치했다고는 추측하기는 곤란하다. 더군다나 그는 당시의 다른 교육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선구자이리라고 짐작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나 그가 듀이의 교육사상과 몇가지 측면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직접 언급한 것은 1901년에 저술한 “독일청소년의 국가시민 교육”이라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둔(Dunn)이 특별히 저술한 내용중에서 국가시민학을 위한 새로운 미국 저서를 열람한 내용과 관련된다. 여기서는 둔이 미국의 여러 교육사조를 비교, 소개하고 있다. 케어션스타이너에 의하면 둔은 듀이의 추종자이며, 둔은 정신적, 수공업 교육에 반해서 국가시민 교육 내지는 일반 교육에 강조점을 두었다. 케어션스타이너는 1901년 그의 저서 “국가시민교육의 개념”에서 둔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케어션스타이너는 둔의 저서가 특별히 가치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듀이가 그의 저서 “교육기초로서 윤리적 원리”에서 갈파한 지침을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어션스타이너의 둔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케어션스타이너와 듀이의 일치된 교육적 견해를 찾을 수 있다. 케어션스타이너는 무엇보다도 듀이의 그 지침에 관심을 집중했고, 관찰의 원리, 분석의 원리, 추론의 원리 그리고 협동의 원리들은 직업학교의 원리와 일치하며, 케어션스타이너의 협력의 원리는 그의 교육이론에서 찾을 수 있는 협력하는 개성이니, 공동책임지는 국가시민 의식등의 교육적 의미로 발전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1933년에 출간된 저서 “교육조직의 이론”에서 케어션스타이너는 듀이의 교육이론과 일치하는 그의 교육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거기서 특히 민주주의 안에서 원칙상 추구해야 할 학교제도에 관해서 기술했다. “의미심장한 학교에로 나가는 길은 더 이상 외적인 지식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이상적인 학교는 쉽게 발견될 수 없다. 단지 학교가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 속에 존재하는 것일 때, 즉 새삭과 같은 지역사회 생활이 될 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새삭과 같은 지역사회 생활은 나와 듀이의 지역사회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속성이다.” 이처럼 그는 그의 직업교육적 사상의 근거에는 따분히 인문주의적 인간관이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의 삶의 공간적 연장인 학교는 수많은 다른 공동체, 즉 방과 후에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원심분리적으로 이탈하는 경향을 저지할 과제를 가져야 하며, 또한 언제나 활동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아동에게 폭넓은 원대한 지평을 제공할 과제를 가져야 한다. 즉, 자라나는 아동들이 생활하는 공동체는 분리된 사회집단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자체가 원래 통합된 속성이어야 한다. 아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정립은 듀이의 민주주의 사상에 상당히 접근해 있고, 한편론 듀이에 비판적인 태도도 나타낸다. 듀이가 독일의 권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교육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케어션스타이너가 주장한 학교의 생활 공동체의 의미는 듀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고리 역할을 한다. 듀이가 파악한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요” 보면 그 두사람간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견해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V. 인문학으로서 교육학

1. 인간학적 교육학

교육학을 일반교육 혹은 문화·교양교육 또는 직업교육으로 분류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지식의 실용성에 근거해서 규정한 것이며, 결국은 그 지식이 어떻게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케어션스타이너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듀이와 구별되는 것은 케어션스타이너에게 있어서 언제나 개성(Individuum)이 관심의 중심 축을 이룬다. 그의 개성에 관한 교육적 해석은 무엇보다 흥미와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과 관련한 그의 지론은 다음의 주장에서 짐작할 수 있다. : “교육받을 자에게 교육적 흥미가 없이는 아무런 교육가능성이 없다.” 그와같은 주장은 그의 저서 모든면에서 자주 발견되는 부분이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흥미에 모든 교육적 처방이 연결될 때 가장 성공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자주 언급했다. 아동의 흥미에 관한 그의 관심은 그것이 심리학적 법칙에 관한 그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흥미의 유발과 지속에 관련된 심리학적 법칙의 적절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정신적 개발과 정신상태의 주요한 측면을 연구했다.

참된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째의 과제는 각개인이 자기의 일과 그의 과업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찰력과 의지와 힘을 연마하고 기르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의 개성교육과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적 입장은 곧 “직업교육은 인간교육을 위한 출입문이다.” 라고 규정하는데까지 이르게 한다. 케어션스타이너가 인용한 잘 알려진 슬로건 문구는 그의 교육사상을 단적으로 대변해 준다 : “너자신을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행하면서 배우라”(try for yourself and learn by doing) 그는 이 슬로건에 덧붙여 말하기를 “단지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이 실시될 때 그학교는 그의 참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며, 참된 교육을 위해 요청되는 계발능력을 갖춘 직업적 양성교육이 실시될 때 교육의 우선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전진이 이뤄진 것이 된다” 위 슬로건은 듀이의 “learning by doing”를 연상케하고, 두사람은 인문교육과 실업교육의 간격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있으며, 결국 인문교육은 인간삶의 유용성을 전제한 실용주의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자주적 활동이나 자립 등의 교육적 의미를 종합하면 케어션스타이너의 직업교육을 통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그에게 노동교육의 핵심점이다. 그의 실제적인 것에 대한 흥미가 듀이의 것과 어느정도 구별될 수 있는 측면이다. 이것은 세가지 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과제로서 다양한

삶의 분야에서 접하게되는 거의 백과사전적 이해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는 학생들이 특정한 물질적 자료를 갖고 가능한한 기초적으로 실제에 익숙하도록 학습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체계적인 작업방법을 그가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문주의적 전통과 실학주의 사상이 그의 직업교육사상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에더러가 분석한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에 끼친 듀이의 영향”에서 에더러가 지적한 것은 케어션스타이너와 듀이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에더러에 의하면 케어션스타이너는 무엇보다도 듀이의 사고와 방법에 관한 작품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논리적 사고과정에 관한 듀이의 상술을 지지했다. 그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실천적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도록 이끌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정신적 태도에서 습관적으로 고정된 총체적 태도를 갖게 되며, 더군다나 그와 같은 것은 자연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또한 실제적 수공업 작업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와같은 케어션스타이너의 수용적 태도는 전통적인 일반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면이다. 사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형식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교양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분위기였다. 그런 풍토위에서 케어션스타이너의 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다루는 인간은 특정한 구분된 지식을 획득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삶의 총체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인간이다. 그러한 생활인으로서 인간에게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구분이 의미가 없게된다.

2. 직업교육과 교육일반

듀이와 케어션스타이너에게 있어 직업교육이론에는 교육의 양면적인 측면, 즉 교양적인면과 직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그런 연유에서 그가 내리는 교육적 가치 평가는 듀이의 교육이론에 비춰서 조명되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케어션스타이너가 견지하고 있는 철학적 소신은 “내적 삶의 형태”에서 이해된다. 그가 한 번 시도한 “내적 부름”이라는 자기교육 용어가 있다. : “우리들은 다음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들 스스로를 숨기지 말자, 즉 직업에 모든 교육활동을 연결시키는 결과는 청소년들이 진실로 “내적으로” 부름받은 직업을 얼마만큼 발견했는가에 달려있다. 실제적 직업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그런 직업에 “내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케어션스타이너가 말하는 “내적인”것은 듀이가 말하는 직업과 행복과의 관계성에 비춰서 그 참뜻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두사람간의 관계성은 케어션스타이너가 인용한 듀이의 개념 “유용한 인간”의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케어션스타이너가 주장하는 “참된 교육으로 가는 길은 각 개인의 개성(Individualität)에 특유한 속성을 통해서 실행될 때만 보장된다. 그와 케어션스타이너의 입장을 감안할 때 듀이가 진단했던 독일국가교육의 부정적 측면은 너무 외향적인 평가일 수 있다는 반론이 독일교육자측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근거는 바로 독일교육저변에 깔려있는 인문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케어션스타이너의 후기 작품중 교육조직의 이론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는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헤겔과 피히테의 교육이념상을 올바로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케어션스타이너 역시 헤겔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헤겔후반기에 있어서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너무 “본질적인 매개체(Wesentliches Mittel)”였다는 것이다. 이문제에 대해서 듀이 혹은 케어션스타이너가 어느정도 옳고 그른지에 대해선 더 이상 여기에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케어션스타이너는 듀이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공공적이고 보편적인 의무교육체계를 이끈 나라는 독일이 처음이며, 이런 상황을 정신과학의 소산이라”고 규정하는 듀이의 분석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듀이 눈에 포착된 독일교육학분야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인상은 케어션스타이너에게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그는 스스로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근원적으로 개성을 선호하는 그의 교육적 고려에는 전체국가주의에서 신봉되는 절대정신의 외적 부산물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비권위적인 측면이 그에게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미국인에 의한 그에 대한 다음의 평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듀이의 동료 길페트릭의 분석에 의하면 “케어션스타이너는 듀이의 식자이며 경탄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케어션스타이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한결같이 독일의 전통적인 직업개념에 집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의 직업교육사상에는 17세기 중세실학주의적 사상이 살아있으며 그것은 19세기 절정에 이르는 독일의 신인문주의사상에 녹아들었고, 그의 직업교육적 사고의 지평은 신대륙의 프로그마티즘적 지형과 맞닿은 것이라 할수 있다.

VI. 맺음말

독일 교육학의 전통은 크게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개념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20세기 초 케어션스타이너에 의해 나타난 직업교육사상이 바로 그러하다. 케어션스타이너에 의하면 참된 교육은 각개인이 자기의 일과 역할을 알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통찰력과 의지와 힘을 연마하고 기르는 것이다. 그의 입장은 곧 “직업교육은 인간교육을 위한 출입문이다.”라는 주장에서 잘 파악된다. 그가 지향하는 것은 자주 자립의 인간이며, 이는 직업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그러나 케어션스타이너는 듀이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양면적 측면, 즉 교양적, 직업적 측면을 갖고있다. 케어션스타이너의 직업교육이론을 “일반적 직업교육이론”이라고 지칭함은 직업교육이 수공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인간교육을 전제한 직업교육적 일반교육이기 때문이다. 일반교육의 인문적인 면을 함께 포함한 그의 직업교육사상은 멀리 19C 전반 신인문주의자였던 훔볼트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와 동시대인으로서 실용주의자였던 듀이의 교육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케어션스타이너에게 직접영향을 미친 훔볼트의

힘과 개성의 개념은 케어션스타이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직업교육의 원리로 모습을 드러낸다. 훔볼트의 힘은 또한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결부될 수 있다. 나아가 듀이의 직업교육도 교양교육 내지 문화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당대의 잘못 이해되고 현실에서 유리된 일반교육에 반발하여, 지식을 학교 외부로부터 그리고 실물 학습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경험들을 두루 섭렵하려 했던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이념은 바로 “지성은 생활속에서 가장 잘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직업교육의 교육학적 의미를 지성과 감성을 양성하는 최선책”으로 제시한 J.듀이 교육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양 편간에는 차이점이 없지 않은데, 그것은 훔볼트의 신인문주의나 듀이의 실용적 교육이 좀 더 문화적·교양적 의미가 강한데 비해 케어션스타이너는 현실의 노동 및 생활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케어션스타이너의 유용성은 전인적이면서도 자기와 민족의 노동, 그리고 그것은 실행할 의지와 힘에 더 무게가 실린다. 케어션스타이너에 의하면 유용한 인간으로서 이상적인 인간은 직업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를 익히며, 나아가서 개인과 국가간의 상호역활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다. 케어션스타이너는 국가를 각 개인의 개성(Individualität)를 규정짓는 준거로 삼음으로써, “조화로운 국가” 혹은 “추상적 국가 이데아”를 신봉하는 자로 지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케어션스타이너의 교육관이 민족과 국가의 가치를 상당히 중시한 점에서 듀이와 같은 미국적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의 직업교육사상에는 인문주의 및 민주주의의 이념이 배어있다. 그가 노동과 직업교육을 통한 전인적 교육을 지향한 점, 특히 아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이 지역사회로 나타나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구나 훔볼트의 힘의 개념은 듀이의 반성적 사고와 연결된다. 훔볼트의 힘은 정신을 창조하는데, 이 정신은 언어를 통하여 외부의 사물을 반영한다. 그리고 Dewey의 반성적 사고란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의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안적 사고가 검증되고 선택되는 사고과정이다. 이 과정은 문제해결 방식을 선택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실험적 사고 또는 실용적 행동주의이다. 이런 이론들이 케어션스타이너에서는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수렴된다고 하겠다.

VII. 참고문헌

- Blankertz H., Die Geschichte der Paedagogik, Wetzlar, 1982.
- Bohnsack F., Erziehung zur Demokratie - John Deweys Paedagogik und ihre Bedeutung fuer die Reform unserer Schule-, Ravensburg: Maier, 1976.
- Dewey J., Democracy and Education, Paperback,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 Dewey J., in: Reform des Erziehungsdenkens, Hrsg. u. uebertr. v. W.Correll, Weinheim, 1963.
- Dewey J., Schools of To-Morrow, in: MW-8, pp.205-404.
- Dewey J., The School and Society, in: MW-1, pp.1-110.
- Edere K.A., Der Einfluss John Deweys auf die Paedagogik G. Kerschensteiners, in: Paedagogische Welt. Monatsschrift fuer Erziehung/Bildung/Schule, 1Jg. 1947, pp.35-46, Donauwoerth.
- Humboldt W.v., Ideen zu einem Versuch, die Graenzen der Wirksamkeit des Staats zu bestimmen, in: Humboldt Werke 5Baende, Bd I, 3.Aufl., 1980, pp.56-233.
- Humboldt W.v., Der Koenigsberger und der Litauische Schulplan, in: Humboldt Werke 5Baende, 3.Aufl., Bd IV, 1982, pp.168-195.
- Hylla E., Uebers., Dewey, J., Demokratie und Erziehung, hrsg. v. Oelkers, Weinheim und Basel: Beltz Verlag, 1993.
- Kerschensteiner G., Aphorismen zur Theorie der Bildungsorga- nisation, in: Texte zum paedagogischen Begriff der Arbeit und zur Arbeitsschule, Ausgewaelte paedagogische Schriften Bd. II, Paderborn, 1968.
- Kerschensteiner G., Berufsbildung und Berufsschule, 앞의 전집 Bd. I, Paderborn, 1966.
- Kerschensteiner G., Die Theorie der Bildungsorganisation, Leipzig und Berlin, B. G. Teubner, 1933.
- Kilpatrick W. H., Deweys Fluence on Education, in: The philosophy of John Dewey, ed.. P. A. Schilpp, New York, 1939, pp.445-474.
- Menze C., Wilhelm von Humboldts Lehre und Bild vom Menschen, Ratingen, 1965.
- Reble A., Geschichte der Paedagogik, Stuttgart, 15. Aufl, 1989.
- Roers H. -J., Bildung und Gesellschaft in der wissenschaftlichen Zivilisation. Ein Beitrag zur Klaerung des Bildungsverstaednisses zwischen Sozialwissenschaften und Paedagogik. Diss. phil., Uni. zu. Koeln, 1972.
- Wehle G., G. Kerschensteiner, in Grosse Bayerische Paedagogen, hrsg. v. Winfried Boehn und Walter Eykmann, Verlag Julius Klinkhardt, Bad Heilbrunn/Obb, 1991.

Education of Humanistic Tendency of Kerschensteiner

Deok-Chill K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character of the educational tradition of Germany could be divided into two aspects. One is the humanistic liberal tendency and the other is vocational. From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unify these two trends by the <integrated comprehensive school>. Georg Kerschensteiner is the first of importance to make some comprehensive curriculum for this goal. In Kerschensteiner, the genuine education makes the individual assume his work and role in society, and to develop them by cultivating insight, will and power. His view is well expressed in the slogan "The vocational education is the beginning of the humanistic education."

His goal is to make men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The theory of Kerschensteiner's education is called 'general vocational education'. The reason why is that his vocational education concerns not just technical training for industry, but also general liberal arts. In this point, Kerschensteiner's point of view goes back to Wilhelm von Humboldt, neo-humanist afar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to John Dewey, pragmatist in the contemporary age of Kerschensteiner.

Kerschensteiner was much influenced by Humboldt's concepts of power and individuality. These concepts came to be embodied as a principle of vocational education in Kerschensteiner. Furthermore, Humboldt's concept of power could be associated with Dewey's theory of reflexive thinking. The power in Humboldt is to create spiri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world outside through language. The reflexive thinking of Dewey is a process that examines and selects some alternative thinking in the consciousness before acting. This process makes one find the method of problem-solving which results in behaviour. That is the experimental spirit or pragmatic behaviourism. These theories are reduced to the concept of 'work' in Kerschensteiner.

And Kerschensteiner's theory of education that has both sides, humanistic and vocational, is similar to that of John Dewey. Dewey brings forward the idea that the vocational education is the best way to cultivate intelligence and emotion, as intelligence operates best in the life. The position of Dewey is in accord with that of Kerschensteiner,

who intends to cover experiences of various fields of society through practice-learning, and to have knowledge got from outside of school, refuting the misled trend of education isolated from real life.

However,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Kerschensteiner and Humbolt or Dewey. While the Neo-humanism of Humbolt and the pragmatic education of Dewey put emphasis rather on the liberal arts and culture of individuality, Kerschensteiner is concerned more with the work and life of the reality of society as a group. Kerschensteiner's concept of utility is related to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nd to the work of the individual and the nation as well as the will and power to practice it. The ideal man of utility of Kerschensteiner is to learn perfectly the value and behaviour of society through vocational life and to have right view of the state establishing a sound mutual 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state. Kerschensteiner is regarded as a devotee of 'the state of harmony' or 'the ideal of the state', as he makes the state as the criterion for defining the role of the individual.

It can be said that Kerschensteiner is not a democrat of the American style as Dewey is, as he makes much of the value of the nation and state. However, he is a humanist and democrat in the point of vocational education. His purpose of education is to make whole men through work and vocational education.